

오명석 해설·옮김



# 선물론

서울대클래식

## 선물론

태고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10일

지은이 마르셀 모스

해설·옮김 오명석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http://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mailto: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734-0 04300

978-89-521-3030-3 (세트)

© 오명석,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F**  
서울대  
클래식

# 선물론

태고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마르셀 모스 지음  
오명석 해설·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선물론(Essai sur le don)》은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니다. 2000년대 초에 이 책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된 이후 관련 저서들이 다수 번역되고 국내학자들에 의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서히 《선물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다. 1980-2000년대 서구 학계에서는 가히 모스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선물론》이 그 중심에 자리했다. 신자유주의의 체계모니적 지위가 강화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판적이었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선물론》에 주목하고, 이 책이 오늘날의 현실에 던지는 시사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과정 속에서 《선물론》은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설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염두에 둔 점은 《선물론》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였다. 이 책은 난해한 철학적 용어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읽기가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소위 원시사회의 수많은 선물 관행과 종교적 관념들, 고대 로마법, 힌두법, 게르만 법의 생경한 용어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상식을 뒤집는 모스의 혁신적 관점은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는, 《선물론》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충분히 밝히지 않은 모스의 연구 관심과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나는 《선물론》을 모스의 다른 저작과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학자·교육자·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스의 삶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2장 ‘《선물론》은 어떻게 쓰였는가?’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런 점에서 2장은 이 해설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모스 선물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텍스트에 충실하게 재현하고(3장), 《선물론》이 촉발한 대표적인 선물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4장), 현 시점에서 《선물론》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물론 이 해설서는 《선물론》 해석에 대한 교

과서적인 정답이 결코 아니며, 독자들이 《선물론》을 깊게 독해하는 데 요긴한 길잡이가 되길 바랄 뿐이다.

해설 다음에 수록된 《선물론》의 번역은 완역도 아니지만 발췌 요약도 아니다. 본문의 약 2/3 정도를 번역했으며, 본문의 논지 전개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리고자 노력했다. 거의 본문의 양에 해당하는 각주는 번역에서 제외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선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거나 당연하게 간주한다. 그런데 나는 《선물론》을 읽으면서 이런 선물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자 하는 지적 자극을 경험했다. 독자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레비스트로스는 《선물론》을 사회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적 작품이라고 높게 평가했는데, 나 역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가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11월

오명석

---

_____ 머리말	5
-----------	---

## 《선물론》해설

I. 서론: 현대 고전으로서의 《선물론》	13
1. 왜 《선물론》을 읽어야 할까?	
2. 학자·교육자·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스	
II. 《선물론》은 어떻게 쓰였는가?	26
1. 《선물론》의 텍스트 구조와 글쓰기 스타일	
2. 모스의 연구방법	
3. 모스의 연구 질문	
III. 《선물론》의 핵심 개념들	69
1. 총체적 선물	
2. 물건의 영적 힘	
3. 호혜성	
4. 선물도덕	
IV. 《선물론》 이후의 선물이론	105
1. 출발점: 모스, 바타유, 레비스트로스	
2. 선물의 실천이론: 부르디외	

---

- 
- 3. 양도할 수 없는 재산과 신성재: 와이너와 고틀리에
  - 4. 신모스주의: 그레고리와 스트래션
  - 5. 인정 이론: 에나프

V. 결론: 현대사회에서 《선물론》의 의미	143
-------------------------	-----

_____ 주	161
---------	-----

## 《선물론》 읽기

서문	선물, 특히 선물에 담례할 의무에 대하여	181
제1장	교환된 선물과 되값을 의무(폴리네시아)	192
제2장	선물체계의 발전: 관대함, 명예, 돈	210
제3장	고대의 법과 경제에서 선물 원리의 잔존	244
제4장	결론	268

_____ 참고문헌	300
------------	-----

---



## 《선물론》해설





## I. 서론:

### 현대 고전으로서의 《선물론》

#### 1. 왜 《선물론》을 읽어야 할까?

“선물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르셀 모스의 《선물론》이다.”<sup>1</sup> 《선물의 수수께끼와 희생의례》라는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책의 편집자인 철학자가 서문에서 밝힌 평가이다. 《선물론》은 이 책을 필수 교재처럼 여겨 온 인류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물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문학비평가들도 거의 한결같이 이론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간주하는 저서이다. 이러한 평가의 이유는 《선물론》의 첫 영문판 서문에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에반스-프리차드가 쓴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인 선물교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비교론적인 연구이다.”<sup>2</sup> 여기서 체계

적 연구라는 의미는 선물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이고, 비교론적 연구라는 의미는 ‘원시사회’에 대한 민족지 자료와 고대사회의 문헌을 활용해서 선물을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1925년에 프랑스로 출간된 《선물론》 이전에도 철학자, 윤리학자, 신학자 등이 선물과 자선에 대한 글을 써왔지만,<sup>3</sup> 《선물론》은 이 주제를 사회과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분석한 최초의 저서라고 평가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선물론》은 선물을 그 이전의 윤리적·신학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획기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선물에 대한 이후의 이론적 논의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한 현대의 고전,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면 모스를 추종하는 학자들에게 ‘경전’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400개가 넘는 각주를 제외하면 본문이 100페이지에도 못 미치는 짧은 책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그런데 왜 선물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와 필요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도 선물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과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선물 관행은 단지 “골동품상의 호기심이나 끌 수 있는 흥미로운 과거의 자취에 불과한 것” 아닌가?<sup>4</sup> 현대

사회에서 선물이 공적 영역에서는 배제되고 주로 가족, 친척, 친구, 연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변적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 현대사회에서 선물이 사적 영역에서 어찌다 행해지는 과거 관행의 잔재에 불과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나아가 모스의 《선물론》을 읽어야 할 필요를 논하기가 무척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적 전망과 평가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존재한다.

고בות은 현대사회에서도 선물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사회적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점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선물은 단지 사적인 친밀한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혈이나 장기기증과 같이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존재하며, 시장과 국가와 경쟁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일은 현대사회에 작동하는 ‘선물의 망각’과 대항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설명하는 지배적 담론에서 선물은 아무런 위치도 부여받지 못하고 망각의 대상이 된다.<sup>6</sup> 또한 현대사회에서 선물은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사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남성중심적 학문에서 경시되어 왔다.<sup>7</sup> 여성의 돌봄 노동

이 남성중심적 학문에서 경시되어 왔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현대사회에서 선물이 실제보다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인지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물에 대한 망각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서구 학계에서 선물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논의에서 모스의 《선물론》이 크게 주목받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모스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가 빈번하게 열렸는데, 그때 선물은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sup>8</sup>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유럽의 복지국가 제도가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떠받치던 기본 원칙들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전개되고,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에 기초한 경제학 모델이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현상 전반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학문적 체계모니를 장악해 가는 시대 상황에 위기를 느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긴박하게 반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들은 모스의 《선물론》에 특히 주목했으며, 이 책의 학문적·실천적 의미를 현대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소환하는 작업에 몰두했다.<sup>10</sup>

《선물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하는 측면을 그 내부에 갖추고 있다. 선물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는 공리주의와의 대결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데, 모스가 《선물론》을 쓰게 된 배경에도 당시 강력한 사회적 이념으로 부상하던 영국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선물론》은 “당시의 정치 이론에 대한 [프랑스 지식인들의] 조직적 공격의 일부였으며, 공리주의에 대항하는 플랫폼의 한 발판이었다”.<sup>11</sup> 또한 프랑스 사회주의자이자 협동조합 운동가로서 모스가 가장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펼쳤던 시기에 “《불세비즘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와 《선물론》을 1925년에 함께 출간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sup>12</sup> 두 글은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론》에서 시도한 ‘선물의 고고학적 탐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태곳적 선물’<sup>13</sup>의 연구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빛에 따라 그 원리를 현재화하는 작업, 즉 지금 여기로의 궁극적 회귀가 목적이다.<sup>14</sup> 공리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선물도덕의 현대적 실천이라는 모스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적실성을 더욱 인정받으면서 《선물론》에 대한 관심을 증

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80-2000년대는 모스의 선물이론의 르네상스라고 평가할 만하다.<sup>15</sup> 이 시기에 영미와 프랑스 학자가 집필한 선물에 대한 이론적 저서와 민족지가 쏟아져 나왔다. 그중 대표적인 저서를 예시하면, 그레고리의 《선물과 상품》(1982), 문의 《가와(Gawa)<sup>16</sup>의 명성》(1986), 스트래선의 《젠더의 선물》(1988), 와이너의 《양도할 수 없는 소유물》(1992), 고봇의 《선물의 영혼》(1992),<sup>17</sup> 카르상티의 《마르셀 모스,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1994), 고들리에의 《선물의 수수께끼》(1996), 까이에의 《선물의 인류학》(2000), 에나프의 《진리의 가격》(200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스의 선물이론을 계승하거나 대결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새로운 민족지 사례를 통해 《선물론》에서 모스가 활용했던 자료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방법론적 도약을 성취했다. 한편 모스를 추종하는 일군의 프랑스 사회과학자들, 특히 까이에가 주축이 되어 1981년에 ‘사회과학의 반공리주의운동(MAUSS: Mouvement Anti-Utilitariste dans les Sciences Sociales)’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선물 패러다임(gift paradigm)’을 공리주의적 일반경제학 모델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 모델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18</sup>

《선물론》은 단지 선물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

나라, 사회구조의 원리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이론적 작업이기도 하다. 모스가 사망한 직후 그의 주요 작품들을 편집해 묶은 《사회학과 인류학》(1950)에 실린 유명한 서문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선물론》이 갖는 이러한 이론적 의미를 포착해 “사회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sup>19</sup> 모스가 처음으로 사회체계의 본질을 교환에서 찾았으며, 선물교환의 구조적 원리인 호혜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사회현상의 심층적 실체를 설명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레비스트로스의 이 해석은 《선물론》이 남겨 놓은 이론적 유산에 대한 “독창적 해법의 시발점”을 이루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환 행위에 주목하는 다양한 사회이론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었다.<sup>20</sup>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2000년대 이전까지 모스의 선물이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 2002년에 《증여론》<sup>21</sup>이라는 제목으로 모스 저서의 최초 한글 번역본이 출간된 것이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카르상티의 《마르셀 모스,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2009), 고들리에의 《증여의 수수께끼》(2011), 살린스의 《석기시대의 경제학》(2014), 푸르니에의 《프랑스 인류학의 아버지, 마르셀 모스》(2016), 에나프의 《진리의 가

격》(2018), 레비스트로스의 《마르셀 모스 저작집 서문》(2023)과 같은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 작업과 더불어, 국내 학자들에 의해 모스의 선물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인류학자와 사회학자가 주도했는데, 인류학자로는 김성례(2005), 오명석(2010), 박세진(2016; 2020; 2021), 정현목(2018), 이승철(2019), 이경묵(2020), 이길호(2020), 정현목 외(2022), 사회학자로는 박정호(2009; 2018), 이재혁(2011), 김왕배(2011), 김주환(2018)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가 촉발된 것은 1980-2000년대에 서구 학계에서 이루어진 모스의 선물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류학과 사회학계에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선물교환이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sup>22</sup>

《선물론》이 출간된 지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났다. 모스 자신이 책 제목을 《선물에 대한 에세이》라고 붙였듯이 실험적 성격의 짧은 책이 수많은 이론적 논의와 선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발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결과이다. 책 속에 담겨 있는 원시사회의 선물에 대한 풍부한 사례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이에 대한 모스의 통찰력 있는

해석은 우리의 사고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는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도 갖추고 있다. 어떤 점에서서는 난해할 수 있는 《선물론》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

## 2. 학자·교육자·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스

《선물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학자, 교육자, 사회운동가로서의 모스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모스(1872-1950)는 프랑스 유대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알자스 로렌 지방에 위치한 에피날에서 태어났다. 모스의 가족은 섬유업에 종사하는 신앙심 깊은 유대인 가정이었다. 모스는 뒤르켐의 외조카로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면서, 연구와 학술활동을 함께 하는 학문적 동반자이기도 했다. 모스는 뒤르켐과 함께 프랑스 사회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또한 프랑스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모스는 뒤르켐이 가르치던 보르도 대학교 고등연구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철학, 종교사, 산스크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그의 영혼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 선물론: 태고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레비스트로스는 모스의 《선물론》이 사회의 실체를 교환으로 보는 독창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적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모스는 태고사회의 선물교환 원리를 호혜성, 물건의 영적 힘, 총체적 사회현상의 측면에서 포착했으며, 이러한 성격을 갖는 선물도덕이 우리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인간 반석이라고 주장했다. 호혜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선물도덕이 현대 서구의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윤리를 창안하는 데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자이며 조합운동가였던 모스가 《선물론》을 통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값 25,000원



ISBN 978-89-521-3734-0  
978-89-521-3030-3(세트)

9 788952 137340